



서울유협동조합, 대리점 자녀 장학금 1억 전달

서울유협동조합은 전국 서울유우 고객센터(대리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총 1억여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유우는 기업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의 취지를 밝히고 자녀 장학금을 통한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유우



KB증권, '깨비증권 행복똑딱 크리스마스 캠프' 진행

KB증권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 소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맞이 '깨비증권 행복똑딱 크리스마스 캠프'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노장갑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 최두희 브랜드전략부 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태광그룹,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 개최

태광그룹이 지난달 29일 '쇼핑엔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임직원과 25개 협력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불공정거래 감시위원회 ▲윤리위원회 ▲신문고제도 ▲ESG 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 등을 공유했다.

/태광그룹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 전국장애인합창대회 금상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2023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경연곡으로 '담쟁이'를 선보여 서서히 높은 벽을 오르는 것처럼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하면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래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코웨이

중기부

눈꽃 동행축제 '1초전도'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눈꽃 동행축제' 홍보를 위해 대국민 SNS 챌린지인 '1초전도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를 응용한 '1초전도 챌린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기원하며 '국민 누구나 비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기획됐다.

이번 챌린지는 가수 테이, 이금희 아나운서 등이 동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차그룹, 이동권 증진 '앞장'... 누적 79억 기부

2011년부터 모빌리티 지원 사업
올해 카니발 등 12억 규모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동 약자에 모빌리티를 지원하며 이동권을 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5일 경기도 용인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대차그룹이 이동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차량과 자전거, 전동 스쿠터와 근력 보조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1년 처음 시작해 누적 79억원 규모를 기부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레이 복지차량 24대와 카니발 복지차량 6대, 전동보장구 105대 등 12억원 규모를 내놨다. 특히 레이와 카니발은 현대차그룹이 육성한 사회적 기업 이지무브에서 개발해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장애인복지시



(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한용빈 부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석왕 회장, 이지무브 김익훈 대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아래),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복지차량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에 모빌리티를 나눴다. 각 기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복지차량과 전동보장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레이 복지차량 및 카니발 복지차

량은 전국 중증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 지원 및 요양 서비스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경증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지원 활동이 이동약

자들의 더 나은 이동,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동약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제60회 무역의날 행사

LG이노텍, 수출 기여 기업 입지 공고히

100억불 수출의 탑 수상

LG이노텍이 100억불 성과를 축하받았다.

LG이노텍은 5일 제60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100억불 수출의탑을 받았다. 문혁수 CEO가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LG이노텍은 2014년 50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한지 9년만에 2배인 100억불 수출의탑을 받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18조 6000억원, 2020년(8조8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5%를 넘어서며 수출 기여 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했다.

LG이노텍은 1970년 설립돼 광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에게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학술부선과 기관 소재, 전장 부품 등을 개발해왔다. 2011년 이후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는 전세계 점유율 1위, RF-SiP 등 고부가 통신용 반도체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LG이노텍은 미래 산업 패러다임 및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차별화 기술 및 생산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언택트 시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혁신 기술 개발뿐 만 아니라, 제품 공정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 전환(DX), ESG경영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혁수 CEO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기술과 생산 경쟁력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국가 수출 증대에 지속 기여하는 LG이노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 수출탑 '쭉쭉'... 전력 송배전 등 성과

북미 등 글로벌 수주 호황

LS일렉트릭(회장 구자균·사진)이 7억불 수출탑을 올렸다.

LS일렉트릭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7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매출 7억 6706만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전년 동기보다 69%나 늘어난 수치로, 2013년 5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후 10년만에 7억불 수출탑도 달성했다.

LS일렉트릭은 동남아 등 주력 시장 성장에 북미 전력 송배전 설



수주 수주 확대 등 성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력 시장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지역

에서 펼친 현지 고객 맞춤형 전략과 더불어 북미, 중동 등 거대 신시장 개척 및 육성 노력의 결과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납기 대응력'에서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IRA 이후 글로벌 기업 투자가 활발해진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잔고도 약 2조3000억원에

/김재웅 기자

달한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과 전기차 공장, 현대차와 SK온 합작 배터리 공장 등에서 전력 기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북미, 동남아, 중동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스마트 전력 기술을 앞세운 신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국가 대표 스마트에너지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이수일 사장, 부회장 승진

27명 정기인사 발표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전문가들을 발탁 승진 조치하며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 '스트림' 기반 신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한국엔컴퍼니는 2024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총 27명으로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 성장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이수일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책임을 확대했다. 아울러 김학주 부사장, 김현철 부사장 등 전무 3명과 상무 6명, 상무보 15명이 승진했다.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도 신성장동력 강화와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성과를 낸 상무 2명과 상무보 1명을 새로 승진시켰다.

/김재웅 기자

인사

◆**삼성화재** ◇부사장 △김일평 ◇상무 △권영집 △김상현 △김현중 △양덕현 △이윤재 △장명조 △조은영

◆**에스원** ◇부사장 △진길수 ◇상무 △박태훈 △안재민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김창모 △김태진 △민병석 ◇상무 △조성제 △허준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서지영 △정의선 ◇상무 승진 △박준석 △원정림

부음

▲원복희씨 별세,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씨 빙모상 = 4일, 포천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7일, 장지 경기 포천 신북면 가족묘지. 031-541-4144